



2023 꿈의댄스팀 운영사업

꿈의댄스팀 in 완주



아이들의 상상력이 뛰는 ‘꿈의댄스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은 항상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24명의 단원들은 매주 모여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습니다.
오늘의 공연을 위해 서로를 이끌며 힘을 맞추고, 땀 흘렸을 아동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반 년의 과정이 쉽지않은데 끝까지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올해의 활동을 마침표를 찍은 것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꿈의댄스팀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황미숙 무용감독님과 연출님, 강사선생님들,
그리고 지지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2023년 1기의 무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아동들의 무대를 계속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회가 어른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그 사실을 증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무대에 부모님, 그 가족, 또 일반 관객까지
웃음꽃이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은 계속해서 아동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 유 희 태

꿈의댄스팀 걸음걸음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입니다.

‘꿈의 댄스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완주문화재단’이 선정되어 5년간 완주 아동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2028년 완주 아동청소년 예술단 창단을 목표로 운영되는 ‘꿈의 댄스팀 in 완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올 한 해 황미숙 무용감독님과 춤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완주 아동 청소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무용 교육을 경험하고
다양한 가치를 배우며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완주의 아동청소년들이
따뜻한 온기와 꿈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주문화재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꿈의 댄스팀 in 완주’ 단원들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의장 서 남 용

꿈의댄스팀 in 완주가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적 감성을 경험하는 데에 그늘 없이 많은 곳에 닿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꿈의댄스팀 운영 사업은 예술가에 의한 활동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 사업이라는 점에 중요하고 의미가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사업 선정을 위해 치밀하게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현대무용가이자 파사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무용공연 활동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교육 사업까지 활동 해오신 황미숙 선생님을 무용감독으로 모시고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지역커뮤니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해온 기획자까지 합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현대무용이라는 장르의 꿈의댄스팀 단원 모집과 운영이라는 과제에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지만 <꿈의댄스팀 in 완주>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0여명의 단원들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한 아동 청소년일지라도 자신을 마음껏 표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몸을 이해하고 움직임 만들어내고 나만의 표현만이 아닌 친구, 동료의 표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춤이라는 매개를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확장시키는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선보인 작품 <친구야, 하늘을 봐!>를 통해 펼쳐낸 그 시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박수 받을 가치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 단원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생과 보람이 교차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용감독님, 연출님,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 뒤에서 애쓰신 완주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 <꿈의댄스팀 in 완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정 철 우

2023년 <꿈의 댄스 in 완주> 무용감독으로서 저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1995년 뉴욕에 갔을 때 불우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무용이라는 장르도 일반 청소년들에게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후 2002년도부터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몸의 학교_춤, 감성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정이나 신체적 표현과 신체의 구조를 알기 전에 K-pop 댄스 수업으로 즐거움에만 빠져 있는 거 같아 저로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집중력, 창의력, 신체의 표현과 구조를 알아가는 시기를 놓치고 가는 거 같아 속상하고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문예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꿈의 댄스팀> 지원사업을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완주를 거점으로 무용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의 무용 교육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꿈의 댄스 단원들이 수업이 진행되어 갈수록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력이 넘쳐 수업을 진행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받기보다 무용 교육에 대한 저의 의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어 완주 꿈의 댄스 단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통한 공연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원들의 성실함과 창의력이 빛났기에 가능했습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단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무용 교육은 정서적으로, 집중력을 키우면서,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자신을 표현해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말보다도 신체로 표현하는 무용 교육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자 인성 교육입니다.

내년에도 단원들과 함께 무용 교육에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각자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용감독 황 미 숙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꿈의댄스팀 사업 소개

꿈의댄스팀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대상의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양질의 무용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5년 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용교육을 진행하며 5년 간의 사업 후 지역에 아동 청소년 중심의 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의 세계를 담은 춤을 만듭니다.”

이 사업의 기본 가치는 ‘몸’이라는 소통 수단을 매개로 나의 세계가 춤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만든 춤들이 연결되어 작품(레퍼토리)이 되는 과정을 함께 합니다. 20개 지역의 다양한 색깔의 춤이 만들어지고 아동 청소년들 각각의 활동을 통해 가치관, 정체성, 미래 역량 발굴 등 아동 청소년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본 사업 선정된 완주문화재단 역시 현대무용가 황미숙 무용감독님과 함께 완주, 전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단원을 모집선발하여 6월부터 30여명의 아동청소년들과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 꿈의댄스팀 in 완주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WANJU CULTURE FOUNDATION

꿈의댄스팀 in 완주 사업 소개

완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꿈의댄스팀 in 완주는 현대무용가이자 파사무용단 황미숙 예술감독님을 무용감독으로 모시고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무용 교육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올해 꿈의댄스팀 사업에 완주문화재단이 선정된 이후 5월에는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33명의 단원을 모집했습니다.

완주를 비롯한 전주 지역, 무용 경험이 있는 학생과 무용을 처음 접해보는 학생,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단원들로 구성되어 6월부터 매주 1-2회, 3시간씩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의 세계를 경험하며 서로를 치유하고 꿈과 이상에 대한 도전을 펼쳐내었습니다.

- 2023. 4 완주문화재단 사업 선정
- 2023. 5 <꿈의댄스팀 in 완주> 단원 모집
- 2023. 6 <꿈의댄스팀 in 완주> 수업 시작 (매주 토요일/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30회차 수업)
- 2023. 8 주민 공유워크숍 <Shall We Dance> 진행
- 2023. 9 백제예술대학교 특강 진행 (실용댄스과)
- 2023. 10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개막 식전 공연 참여 <친구야, 하늘을 봐!>
- 2023. 11 <꿈의댄스팀 in 완주> 결과발표회 <친구야, 하늘을 봐!>



무용감독 황미숙을 소개합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는 현대 무용가이자 파사무용단 예술감독, 몸의학교 대표인 황미숙 선생님이 무용감독으로 참여하여 단원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황미숙 무용감독님은 전문 무용수들과의 창작 공연활동 외에도 나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춤으로 표현해나가는 '마암댄스' 무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아동 청소년들뿐만이 아닌 일반 성인들과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이력

- 파사무용단 예술감독
- 몸의학교 대표
- 1989년 황미숙현대무용단 창단 (2022년 파사무용단 변경)
- 2009년 몸의학교 무용교육 커리큘럼 개발 (2011년 몸의학교 상표출원)
- 2021년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코파나스 상 수상
- 현,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이사

대표작품

- <여립(汝立)_지워진 이름 정여립>
- <NET, 인드라>
- <버려야 할 것들...>
- <붓다. 일곱걸음의 꽃>
- <넌 누구니?>
- <서랍속의 시간>
- <친구야, 하늘을 봐>



아동 청소년 대상의 무용교육이 필요한 이유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시기에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무용교육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특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나의 신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긍정적인 사고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그 기본을 무용 교육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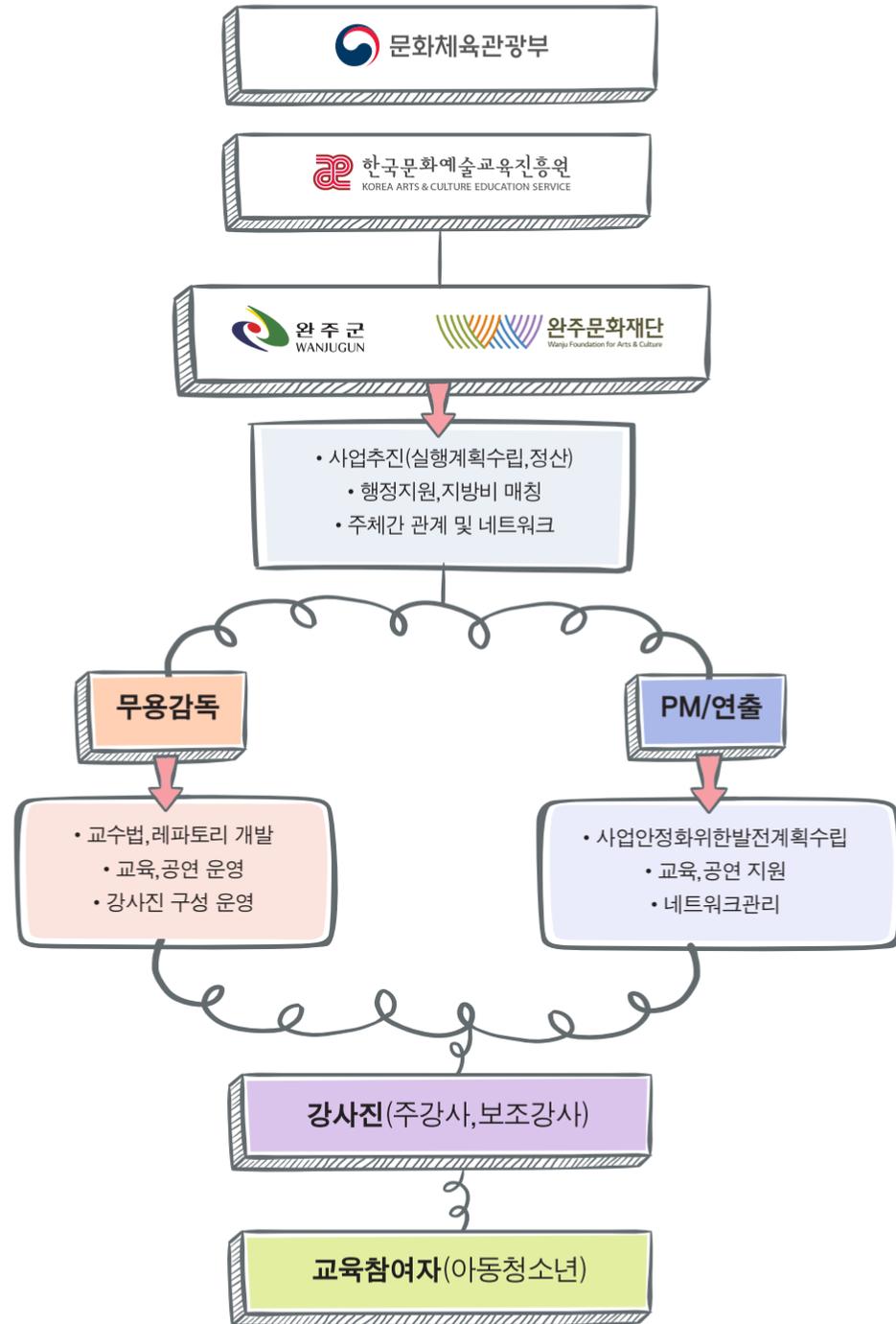
'꿈의 댄스팀 in 완주'만의 무용교육 주제가 있다면?

꿈의댄스팀 사업은 수도권보다 지역에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 감성으로 신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마다 주제를 다르게 해서 접근하도록 했어요. 신체에 집중력과 창의성을 개발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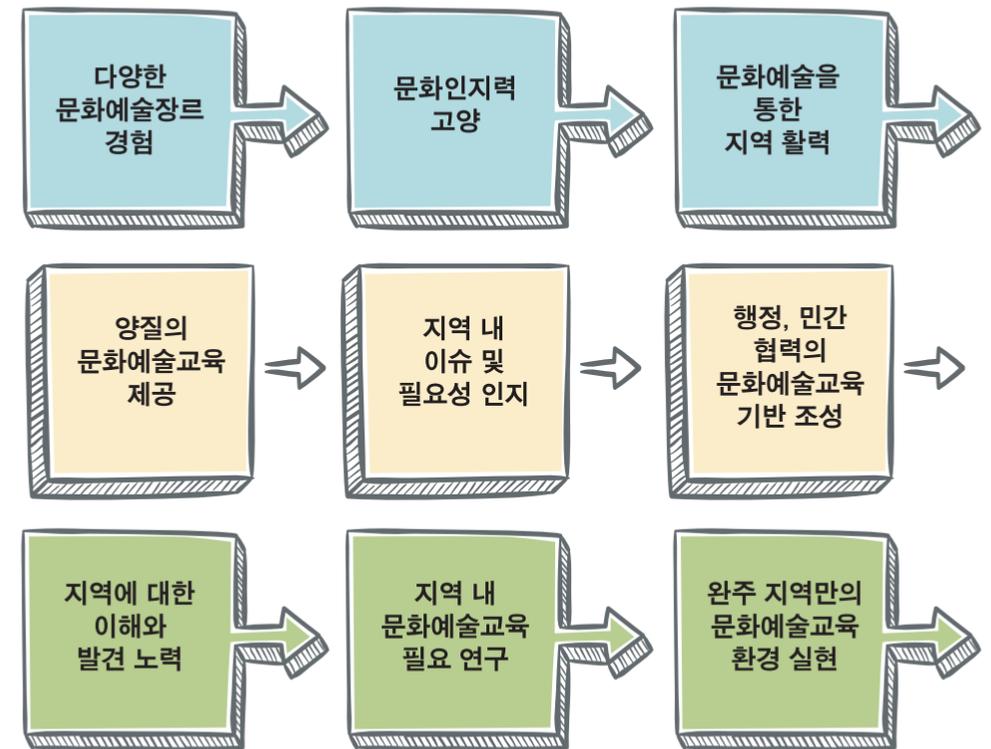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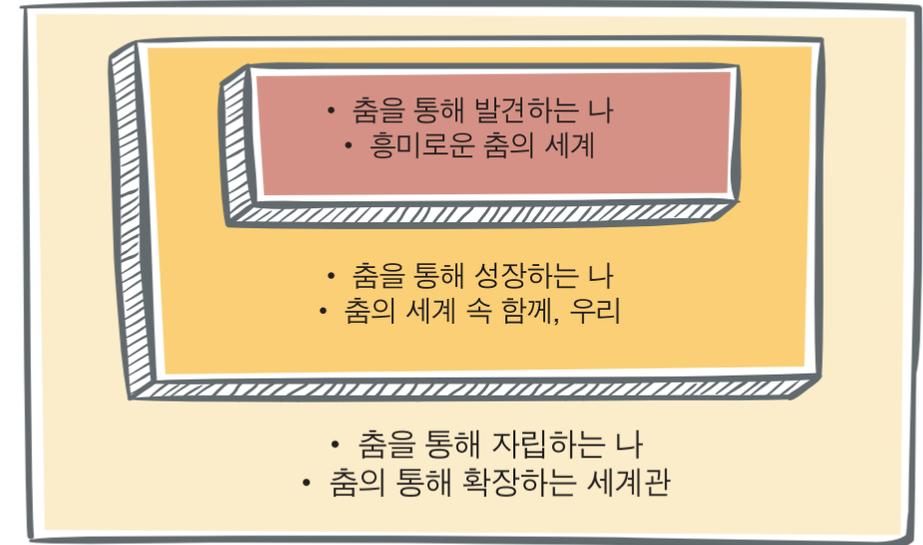
'꿈의 댄스팀 in 완주'의 단원들에게 바라는 점

우선은 무용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깨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받아들임의 과정을 발전시키길 바라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는 경험을 스스로 하게 되죠.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력과 인내심을 키워야 하는 그 지점을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했다면 좋겠어요.

운영조직도



발전계획



꿈의댄스팀
in 완주
그 시간을
돌이켜보다.

6/3~11/11

매주 1-2회

3시간씩

총 33회차 105시간



만남, 이름, 움직임, 놀이, 즐거움

쭈뼛쭈뼛 연습실로 들어오는 친구들과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몸으로 표현하고
친구들의 몸짓을 따라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팀을 나누어 몸을 다루어내는 게임을 하다 보니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새 놀이터처럼 화기애애해졌습니다.



◎ 인사는 어떻게 할까?

- 손을 흔드는 방법이 있지.
- 프랑스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

◎ 걷는 건 어떻게 걸을까?

- 작은 걸음
- 큰 걸음
- 빠른 걸음

◎ 공간을 다니며 몸으로 인사나누기

◎ 이름을 몸짓으로 만들어 소개하기



나의 몸을 이해하기

나의 몸을 다루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절은 어디에 있지?
내 몸으로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나의 몸을
이리저리 직접 움직여보고 표현하며
나의 몸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 **관절만 움직여서 이리쓰기**
- ◎ **움직이다 멈추기, 멈추었다 움직이기**
- ◎ **풍선으로 몸을 움직이기**
 - 정해진 신체 부위로 풍선을 튕기며 움직이기
 - 풍선을 튕기지 않고 띄우기
- ◎ **짝과 함께 풍선으로 소통하기**
 - 풍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가락 하나로만 맞대어 함께 움직이기
 - 상대방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관찰하며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 받기





나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서로 마주하여
몸으로, 눈빛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
내 안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임을 확장해감으로써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 대형을 이루어 서로 소통하며 움직임을 만들기
- ◎ 공간을 나의 움직임으로 채우기
- ◎ 서로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마음읽기

시간이 지날수록
움츠러들었던 몸은
활짝 펴지고
연습실에도
활기가 생겼습니다.



소리에 반응하기

소리를 박자로

박자를 음악으로

◎ 소리 전달하기

- 앞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 소리의 톤과 리듬, 형태를 관찰하고 똑같이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 부끄러울 수 있고 우스울 수 있지만 진지하게 소리를 관찰하고 따라하기

◎ 박자에 맞춰 움직임 만들기

- 2박, 3박, 4박 박자를 배우고 박자 속 강약을 이해하기
- 박자별 움직임 동작을 정하여 표현하기

◎ 소리에서 음악으로

- 소리에 움직임을 더하고 여기에 음악을 더해 표현을 확장해보기





◎ 짝공과 움직임 안내하기

- 두명씩 짝을 지어 눈을 감고 눈을 감은 채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믿고 움직이며 공간을 이동하기
- 움직임 후의 느낌 나누기

◎ 손끝을 마주하고 움직임 만들어보기

-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눈을 뜬 짝공의 손끝 움직임에 집중하기
- 손끝이 이끄는대로 몸을 더 크고 다채롭게 만들어보기

◎ **눈의 소중함**으로 알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걸 느끼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 두 명씩 마주보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따라하기
- 따라하는 동작을 마주하며 나의 움직임을 마주하기

◎ 두 명씩 자석놀이

- 서로 마주보고 멀어졌다 가까이를 반복하며 따라하는 움직임을 공간으로 경험하기

◎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기





◎ 테이핑으로 공간을 만들고 표현하기

- 월, 화, 수, 목, 금 5일간의 감정을 5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바닥에 테이핑하기
- 테이프 색깔별 다양한 걸음으로 이동해보기
- 4개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움직임으로 걷고 교차하기

◎ 팀별 주제를 정해서 테이핑 공간을 이동하며 이야기 만들어내기

- 상호작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 타 그룹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유추하며 소통 방법 확장하기

◎ 음악을 더하여 공간 속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만들어보기





아직은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지면을 데우고 있을 때쯤
 어울림카페 앞 잔디마당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낯설어 대면대면한 분위기였지만
 기대와 설레임의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행사해요?”

“네, 오늘 여기서 춤 배우는 워크숍 할거예요.
 같이 하시죠.”

지난 6월부터 시작한 <꿈의댄스팀 in 완주> 팀이
 이제까지 배우고 훈련해왔던 몸으로 표현하는 ‘마암댄스’를
 단원들 중심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색다른 무용교육의 필요와 재미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색다른 춤의 세계를 소개하며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몸이 이런 줄 몰랐어요.
 새삼 소중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백제예술대학
실용댄스
언니,오빠에게 배워요”

완주에 있는 백제예술대학에
실용댄스학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댄스학과
언니, 오빠에게
또 다른 춤을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춤과는 좀 다르지만
TV로 보던 춤을 배워보니
춤의 세상은 참 다양한 거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날 기록됐어요!

낮선 현대무용의 세계
나를 알아가고 표현하는 그 과정
마뚝거리던 나를 선생님이
직접 함께 호흡하며
춤을 만들어내줬던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
은이그, 이거들 어찌 이리 장남냐~
보라보~그렁지~ 그렁지~”



“
친구야,
하늘을
봐!”
”



친구야, 하늘을 봐!

이 작품은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는 따돌림과 왕따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사라져야 할 문제들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왕따, 학폭 등 학교 문제에 대해 수년간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그 체감의 정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장 다락방 속의 비밀

다락방은 나만의 공간이자 세상이다.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나는 오늘도 혼자 남아있다.

하지만 누군가 찾는 소리에
나는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다.



2장 네모난 세상

교실은 우리만의 세상이다.

아직 제 색을 갖추지 못했지만
조금씩 번지고, 서서히 배어드는
어쩌면 우리들은 '파스텔'을 닮은 듯하다.

비슷하지만... 각기 다르고,
선명하진 않으나... 너무 다양한,

그 각각의 색으로 물들인 풍경 하나.
교실은 그렇게 우리들의 화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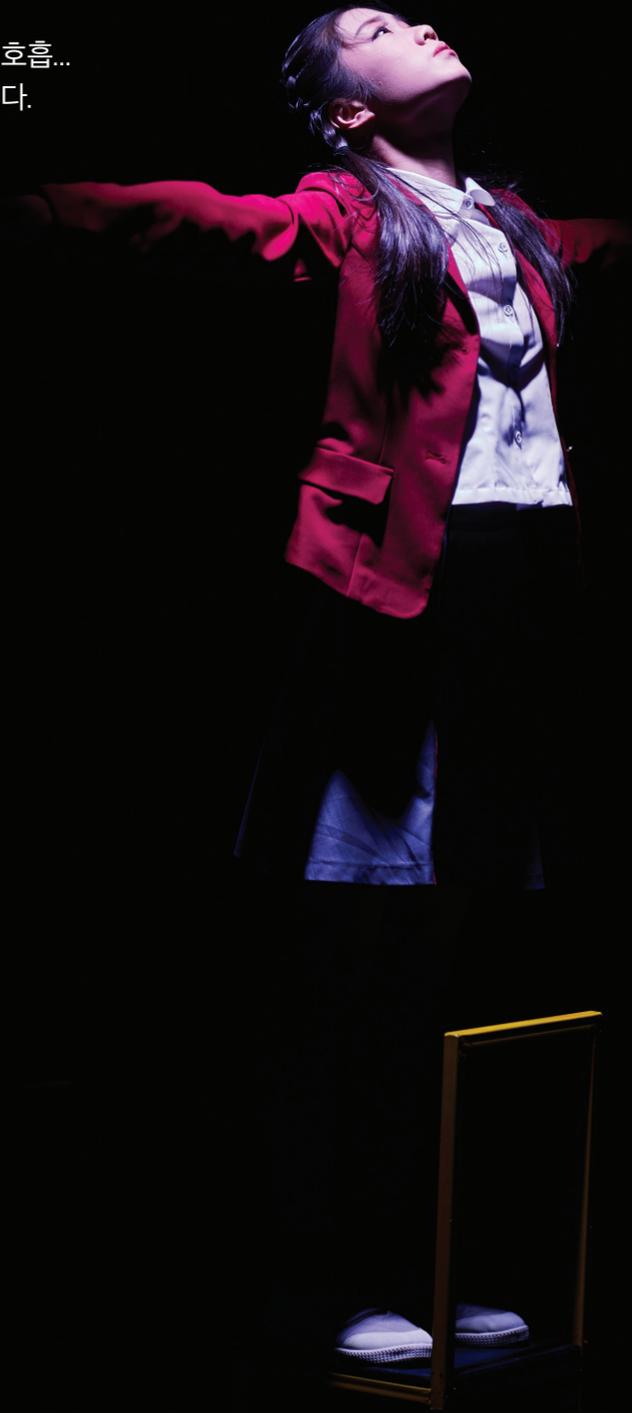


3장 마음의 소리

나를 가두는 교실 안...
숨을 쉴 때마다 힘들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점점 조여오는 호흡...
그 소리가 두렵다.



4장 놀이에도 규칙이 있다.

놀이는 자유롭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자유로우나 늘 자유롭지만은 않다..?

놀이에도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다.
정해놓은 rule에서 벗어나면 out인 것처럼...

그래서 마냥 쉽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다.
놀이는 단지 축소된 사회일 뿐이었음으로...



5장 꽃의 눈물

운동장에 남아있는 우리들...

내리는 비는
마치 눈물인 듯

그 비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무슨 생각에 하고 있을까?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우리의 세상을 떠나고...



6장 그리고 친구야 하늘을 봐

사진 속의 친구 얼굴...

친구 곁에 있는 나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우리들의 세상에서
꿈을 펼친다.









작은
연구



이번 '작은 연구'는 2023 꿈의댄스팀 in 완주의
 사업 초기에 설정했던 운영 방향과 주제에 비해
 실제 운영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단원으로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춤을 얼마나 잘 추게 됐는지 보다
 무용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나를 표현하는 점에 풍요로운 감정으로 거리낌이 없고
 나를 비롯한 친구, 동생, 언니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를 챙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첫째 활동으로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입체적인 인터뷰와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단원여러분,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의댄스팀 단원으로 춤을 배우고 난 뒤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집중력이 생겼어요.

유연해지고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용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금 더 춤을 좋아하게 됐고 바빠졌다.

유연성

현대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자유롭게 찻던 거 같아요.

무대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더 생긴 거 같아요.

몸을 더 아름답게 움직이며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춤을 잘 추게 됐어요.

꿈의댄스팀 단원으로 활동하는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토, 일 다 와서 연습해야할 때

연습하며 외우는 것이 어려웠던 거 같아요.

많이 연습했을 때.

의자를 들 때 약간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힘들었다.

없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부족했던 점

선생님이 어려운 동작을 알려줄 때

하다가 뛰니까 힘들어요.

단원들 중 나이가 제일 많다보니
아이들을 관리하거나 리더쉽 있게
행동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꿈의댄스팀 단원으로 활동하는 중
가장 좋았던 점은?



공연도 하고 언니들, 동생들,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

대부분 다

언니, 친구들과 같이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멋진 공연 작품을 보여주는 점

애들이랑 같이 안무 연습하는 거랑 간식 먹는 거 😊

새로운 춤과 무대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행복하게 연습하고 무대에서 잘 표현하는 게 좋았어요.

활동할 때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친해져서 좋았어요.

공연을 해서 좋았어요. 😊

친구들이 많아졌다. 😊

제가 창의적으로 춤을 표현할 때 재미있고 좋았어요. 😊

나만의 춤을 발견한 점도 좋았고 다른 단원들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춤을 '마암댄스' 라고 해요.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춤이라는 뜻이지요.
친구에게 꿈의댄스팀을 소개한다면?



몸으로 표현하는 창작무용이야~ 라고 설명해요.

친구들에게 마암댄스를 설명해주고 재밌을 거 같지 않니? 라고 해주고 싶어요. 😊

마음을 나타내는 춤이야

자기 몸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

이 춤을 추면 K-pop 보다 더 멋있다. 😊

너도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춤을 한번 배워볼래?

협동을 하면서 하는 뮤지컬 같아. 😊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신나고 좋은 뜻이 담긴 춤이야.

너의 감정 또는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춤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야. 😊

꿈의댄스팀 무용감독님과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주말마다 3시간이란 많은 시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용을 잘 가르켜 주셔서 감사해요.

주말마다 3시간이란 많은 시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매일 저희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언제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활동을 하는 5개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춤에 대해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
고3이라 함께 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학생으로든 관객으로든
다시 만나고 싶어요!

모르는 안무를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활동을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다들 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항상 저희를 봐주시는 게 힘드실텐데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만큼 수고 많으셨을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어볼까 합니다.
꿈의댄스팀 활동 동안 **힘드셨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말에 놀러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3시간 사이 기다리기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힘들었다기 보다
가족나들이나 여행을 못가게 돼서
그게 아쉬웠어요.

토요일, 일요일 두번 수업은
아이도 엄마도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결석하게 될 때
죄송했습니다.

토요일 이후엔
다른 일정을 잡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디.

꿈의댄스팀 활동 동안

우리 아이가 달라진 점이 보였다면 남겨주세요.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합니다.
리더십이 더 생긴 거 같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끝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힘든 마음을
이겨내는 모습이 보여서 대단했습니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을 알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많이 성장한 거 같아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도 확고해진 거 같습니다.

주말마다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두언어를 배워겠다는 생각이
보기 좋았구요.
처음은 낯설었지만
지금은 모든 단원들과 친해진 걸
좋아한다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과
무엇보다도 아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신감이 향상된 거 같습니다.

자신의 몸과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성숙해진 거 같습니다.

꿈의댄스팀에 남기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주말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 같아요.



결과물보다 끝까지 해냈다는 것에
큰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감사하고 애쓰셨습니다.

아이가 주말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대견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항상 더 높아진 거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게 힘들긴 했지만
나름 배운 것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알았구요.
감사합니다.

5년의 사업동안 전문적인 무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대양산 활동과 진로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
라이팅!!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잘 지낼 수 있게 지도해주시고
몸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어 감사해요.

항상 열정적인 수업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을 경험한다는 일

나의 몸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꿈의댄스팀 in 완주의 단원이 되어 첫 수업을 참여했을 때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팔을 뻗치는 것도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나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어
춤으로 표현해내는 단원들을 보고 놀랐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꿈의댄스팀 단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다루어내고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꿈의댄스팀 사업을 통해 단원들에게 심어지길 바라는 가치입니다.
춤을 잘 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단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2023년 꿈의댄스팀 in 완주는 초등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까지
그리고 다양한 무용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 단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주 1-2회, 3시간씩 꿈의댄스 수업을 하는 동안은 나를 알아가는 것 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들과 만나 함께 춤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나의 세계를 너머 엄청난 세계관을 경험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무용교육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역 기반을 위한

단원 모집 당시 3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3회차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끝까지 함께 못한 친구들은
K-pop 댄스가 아닌 현대무용이라는 춤에 대한 낯섬과 어려움,
엄마가 주말 근무를 하게 되면서 데려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점,
매 주말마다의 출석의 어려움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참여의지보다 부모의 여건이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는 아쉬움,
현대무용이라는 무용교육의 낯설음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꿈의댄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보다 더 쉽게, 보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대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현대무용도 배울 수 있는,
무용교육, 나아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작성자 꿈의댄스팀 in 완주 연출(PM) 윤혜진

꿈의댄스팀
단원을
소개합니다.





꿈의댄스팀 우리의 약속

- 서로 존중하기
- 수업시간에 집중하기
- 손 들고 질문하기
- 부끄러워 하지 않기
- 질서 잘 지키기
- 정리정돈은 스스로 하기
- 모든 약속 잘 지키기

꿈의댄스팀 in 완주 단원



가오지아
만성초등학교 2학년



문예나
화산초등학교 2학년



김지안
양현초등학교 2학년



이태경
화정초등학교 4학년



장은재
전주 자연초등학교 4학년



백소담
청안초등학교 4학년



김유은
봉동초등학교 3학년



이다예
전주 은빛초등학교 3학년



백한나
효천초등학교 3학년



배소현
만성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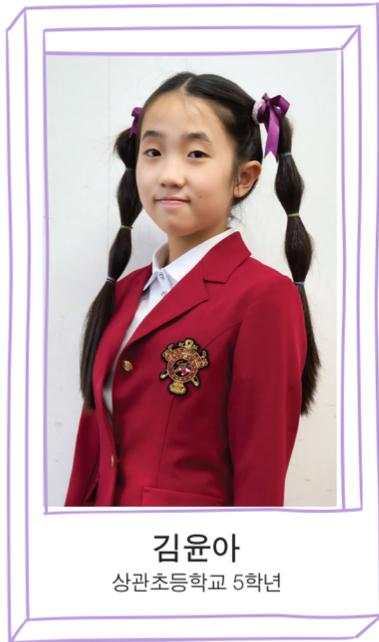
이민영
용봉초등학교 4학년



김나운
하가초등학교 5학년



고하운
봉동초등학교 5학년



김윤아
상관초등학교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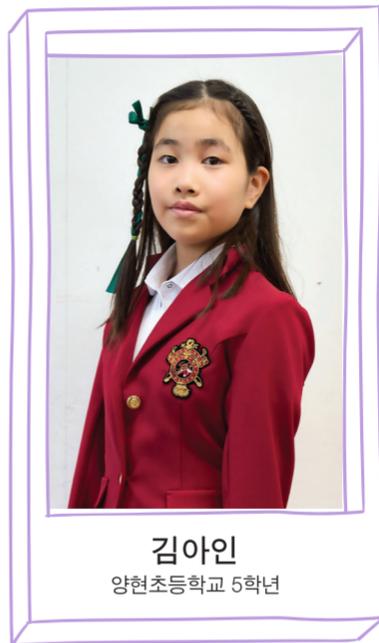
송가운
화산초등학교 6학년



전민지
전주 송원초등학교 6학년



김사랑
전주 솔빛중학교 1학년



김아인
양현초등학교 5학년



양하운
삼천남초등학교 5학년



문서운
화산초등학교 6학년



김유원
완주중학교 1학년



김은세
전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소운
슬내고등학교 2학년

꿈의댄스팀 staff



황미숙
무용감독



윤혜진
연출(PM)



강영진
주강사



장하람
주강사



허건환
보조강사



이윤하
보조강사

제작진

예술감독 **황미숙**
안무 **이지은**
조안무 **강영진 장하람**
작곡 **임진영**
의상디자인 **최인숙(퍼틀랜드)**
조명감독 **황종량(트리거컴퍼니)**
무대감독 **임찬울**
분장 **한원경**

함께 해주신 분들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철우**
국장 **송은정**
예술진흥팀장 **이윤주**
예술진흥팀 **오다영**

홍보제작 **원두콩미디어협동조합**
영상기록 **김병수(제리스튜디오)**
사진기록 **장원철**
아트웍디자이너 **서초롱**

감사합니다

완주청소년수련관
삼례생활문화센터

2023꿈의댄스팀 단원 학부모님

유민영 최지영 이은경 원소라 황사라 전설희
정수진 이희연 임경미 박재희 이정현 곽수경
김미진 김영이 국영민 유민영 조연덕 황인희
탁지은 김소연 구정애



2024년
꿈의댄스팀 in 완주기대와 응원 바랍니다.





